

제 5회 『자유 101』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3명
2019년 1월 27일 경남 창원시 할리스커피에서

‘완전 경쟁이나 완전 정보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자유 시장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은 완전 경쟁도 완전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있는 것을 기초로 작동한다. -중략- 교과서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는 ‘균형 가격(equilibrium prices)’에 관해 이야기할지 모르나, 어느 누구도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가격은 항상 변하고 있고, 상이한 시점들에서 상이한 판매자 유형들 사이에, 그리고 상이한 장소들 사이에, 다르다.

수요, 공급은 그래프 상에서 선 보다는 마치 수많은 점들의 집합에 가깝다. 수요는 사람들의 수만큼 수없이 다르다. 같을 수 없다. 공급 또한 마찬가지다.
보통 주식시장을 완전 경쟁의 예로 많이 들지만 그 안에서 정보 차이부터 많은 차이가 난다. 기관과 개인 등의 정보의 격차가 크다.
완전 경쟁이 있다면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대기업은 오직 이윤만 신경 쓴다.’

-이것의 함의는 그들이 무모하고 비도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짓밟는다는 것이다. -중략-
대기업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상인이 할 수 있듯이 자신의 고객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 이것은 대기업이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그것은 소기업을 특정짓는 개인적인 지식의 자리에 위치한다. 기업은 이윤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 쓴다.

‘대기업은 오직 단기적인 이윤만 신경 쓴다.’라고 제목이 붙여졌다면 의견에 이견이 많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이 이윤 추구적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다. 브랜드라는 것도 장기이윤으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에게 목적이 우선이고 이윤은 부차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앞의 말은 후에 진행할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에서 다룰 것이다.

‘교육은 권리이지, 사고 팔리는 어떤 것이 아니다.’

-교육은 사고 팔린다. 그것은 생산하는 데 돈이 드는데, 그것의 공급에 자원들과 인원이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은 그것이 사고팔려야 하는지가 아니라 정부가 그 거래를 독점해야 하는지 이다.

선진국 아이들은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고 후진국 아이들은 그 부품을 만든다는 비유가 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쌓여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잉여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그 잉여시간을 아이들 교육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누군가가 생산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이 권리라면 의무를 누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인가?
정보는 시장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는 독점이라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생산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사담

◦ 학회의 작은 과제(미결)

1. 중고나라에서 매출을 5만원 이상 올린다.
2. 유가증권, 비트코인 등 자산가치가 5천원 정도 구매해 볼 것.
*위 1, 2번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오고 짧은 브리핑을 준비해볼 것.

◦ 새로 참석하신 회원분의 실리콘밸리에서 얻고 배운 내용 : 창업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학력보다는 첫째, 좋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분석을 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